

# 영화 '뺑반' 공효진x류준열x조정석, 새해 첫 통쾌함이 온다



통쾌하고 화끈한 '뺑반'이 새해에 관객을 맞이한다. 20일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점에 열린 영화 '뺑반' (감독 한준희·제작 호두앤유픽처스(주)·(주)쇼박스)제작보고회에는 한준희 감독을 비롯해 공효진 류준열 조정석이 참석했다.

한준희 감독은 "시나리오를 받은 다음에 좋았던 지점을 가져오기도 하고 각색도 했다. 이 작품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돼야 한다는 수많은 영화와는 달리 인간이 돼서도 괴물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작업이 경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효진은 "범죄오락액션은 처음이다. 내게 어려운 장르이기도 하다. 처음 결정하고 촬영을 하면서 어렵

## 뺑소니 전담반의 고군분투 그린 범죄오락액션

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었다. 그래서 이 장르를 자주하시는 남자배우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쾌하고 화끈하더라"라고 말했다.

'뺑반'으로 좌천된 엘리트 경찰은 시원 역을 맡은 공효진은 "처음에 캐릭터를 봤을 때 재미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이게 다 합쳐서 보니까 은 시원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더라"며 "욕을 차지게 하는 배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영화는 욕 한 마디 하지 않아도 무섭다. 내가 봐도 후덜덜 하더라"고 말했다.

올해 '독전', '비밀 포스트' 등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인 류준열은 '뺑반'에서 막내지만 에이스인 시민재 역을 맡았다. 류준열은 "제 새로운 모습도 보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류준열대로 움직이는 순경의 모습보다는 다른 뉘고 독특한 인물을 연기했다.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했다.

공효진과 류준열은 경찰 선후배로 연기호흡을 맞춘다. 두 사람의

첫 인상은 어땠을까. 공효진은 류준열의 첫 인상에 대해 "키가 크고 몸의 비율이 좋더라. 그런데 가장 놀란 것은 류준열의 목소리다. 생각보다 저음이라. 사람을 나눌 때도 저음이라서 신기했다"라며 "그리고 애교가 많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하며 앞과 까듯이 류준열의 매력을 파헤치겠다"라고 말했다.

류준열은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공효진 선배를 처음 만났다. 그날이 드라마 촬영 첫 날이라서 공효진 선배와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기대가 엄청 컸다. 공효진 선배의 헤어와 의상을 입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선배의 연기를 보는데 너무 신기했다. 대사로 많았는데 흔들림 없이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웠다. 그 때부터 '공부'라고 하면서 좋아했다"라고 말했다.

류준열은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공효진 선배를 처음 만났다. 그날이 드라마 촬영 첫 날이라서 공효진 선배와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기대가 엄청 컸다. 공효진 선배의 헤어와 의상을 입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선배의 연기를 보는데 너무 신기했다. 대사로 많았는데 흔들림 없이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웠다. 그 때부터 '공부'라고 하면서 좋아했다"라고 말했다.

조정석은 "두 분이 이런 재미를 많이 보여줬다. 현장마다 즐거움이 보였다. 나는 역할 때문에 때때로 당했다. 외로웠다"라고 말했다.

조정석은 '뺑반'에서 한국 최초 F1레이서 출신 통제불능 스피드광 사업가 정재철 역을 맡았다. 생애 첫 악역 도전이기도 하다.

그는 "이런 역할이 잘 안 들어와서 선택 결정했다. 새로운 시나리오를 찾았는데 이런 역할을 주신 한준희 감독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목마름이 항상 있었는데 이 작품을 만나게 돼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뺑반'이 영화가 개봉한다는 것에 새삼 놀라웠다.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많아서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기대된다. 그래서 이 자리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한준희 감독은 "제 사람과 함께 하면서 관객이 되는 것 같았다. 모니터로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더라. 그게 즐거웠고 중요했다"라고 말했다.

영화 '뺑반'은 통제불능의 스피드광 사업가를 쫓는 뺑소니 전담반의 고군분투를 그린 범죄오락액션. 한준희 감독이 베가톤을 집안으며 은 시원 시민재 정재철 윤지현 우선영 기태호 한동수가 출연한다. 내년 1월 개봉.

## '2018 KBS 가요대축제' 최종 라인업 완성

'2018 KBS 가요대축제'가 총 29팀의 최종 라인업을 공개했다. 방탄소년단 EXO-트와이스 워너원-레드벨벳-세븐틴 여자친구 BTOB-에이핑크-황지열-선미-청하-노라조-오마이걸-(여자)아이들-AOA-빅스-뉴이스트 W-GOT7-몬스타엑스-NCT 127-용준형-10CM-로이킴-러블리즈-모모랜드-우주소녀-김연자-셀럽파이브가 총출동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환상적인 축제의 장을 예고해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오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되는 '2018 KBS 가요대축제'에서 우주소녀-김연자-셀럽파이브가 마지막으로 합

류, 온 가족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우주소녀는 2016년 데뷔 이후 독특한 세계관과 콘셉트를 바탕으로 팬덤을 크게 쌓아 올렸다. 매혹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인기 행진 중. 한중 합작 걸그룹인 우주소녀는 범아시아권에서 주목 받으며 대세 걸그룹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연자는 독보적인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바탕으로 '원조 힙류스타'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며 바 있다. 무엇보다 2013년에 발표한 '아모르 파티'가 역주행해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처럼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김연자가 '2018

KBS 가요대축제'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이어 국내 최고령 걸그룹 셀럽파이브가 마지막으로 합류한다. 셀럽파이브는 '노슈즈', '노마이크'라는 기상천외한 콘셉트를 선보여 가요계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방송 경력만 도합 70년에 이르는 연륜과 남다른 맨발 후혼으로 무대에서 열정을 폭발시키고 있다. 이에 팬덤을 망라한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셀럽파이브에 기대감이 모아진다.

이처럼 우주소녀-김연자-셀럽파이브의 합류로 '2018 KBS 가요대축제'의 초특급 라인업이 완성됐다. 2018년 가요계를 뒤흔든 방탄소년단-워너원-레드벨벳-세븐틴-여자친구-BTOB-에이핑크-황지열-선미-청하-노라조-오마이걸-(여자)아이들의 1차 라인업 13팀과 EXO-트와이스

AOA-빅스-뉴이스트 W-GOT7-몬스타엑스-NCT 127-용준형-10CM-로이킴-러블리즈-모모랜드의 2차 라인업까지 총 29개 팀이 축제 분위기를 후끈하게 달굴 예정이다.

이에 '2018 KBS 가요대축제' 측은 "방탄소년단부터 셀럽파이브까지 초대형 라인업을 구축해 역대급 무대로 안방극장을 들썩이게 할 예정이다. 총 29개 팀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환상의 세계로 관객들을 인도하기 위해 화려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 드린다"고 전해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한편 '2018 KBS 가요대축제'는 12월 28일 저녁 8시 30분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되며 KBS 2TV에서 생방송된다.

## 방탄소년단×블랙핑크, 인스타그램 어워드 보이&걸그룹 1위



인스타그램이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주목 받은 스타들을 선정한 '2018년 인스타그램 어워드(2018 Instagram Awards)'를 발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한 '2018년 인스타그램 어워드'에서는 '가장 사

랑받은 계정', '탑 10 계정', '가장 많이 성장한 계정', '1위 보이그룹', '1위 걸그룹',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사진' 등 총 여섯 가지 부문을 시상했다.

올해도 K-POP 스타들과 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jennibyjane)는 '2018년 가장 사랑받은 계정'의 주인공이다. '가장 사랑받은 계정'은 스타가 한 해 동안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피드 및 스토리 게시물의 조회수, 팬들이 남긴 '좋아요'와 댓글 수를 취합해 선정한다.

제니 뿐만 아니라 블랙핑크의 다른 멤버들도 '2018년 가장 사랑받은 계정' 부문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제니는 그룹을 대표해 "제 인스타그램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추억을 공유할 예정이니 지켜봐달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박방의 지드래곤(@xxxibgdrgm)은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한 '탑 10 계정' 부문 1위를 고수했다. 지드래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5년 연속 국내 인스타그램 계정 중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연예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탑 10 계정'에는 그룹 엑소 멤버 박찬열(@real\_pcy), 오세훈(@oohsehun), 백현(@baekhyun\_exo), 그리고 배우 이종석(@jongsook0206) 등이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탑 5 계정' 중 유일한 배우로서 이름을 올린 이종석은 "평소 작품 외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기에 인

스타그램이 국내외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였다. 팬 한 분 한 분이 만들어주신 상이 만큼 더욱 감사하게 받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2018년 가장 많이 성장한 계정'으로는 배우 김소현(@wow\_kimsohyun)이 뽑혔다. '가장 많이 성장한 계정'은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계정 중 스토리, 라이브방송 등 다양한 기능을 적극 사용해 팬들과 소통한 계정을 선정한다.

김소현은 2018년 한 해 동안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활용해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 영상 및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활발히 소통했다.

인스타그램은 또한, 올해 최초로 '1위 보이그룹'과 '1위 걸그룹'을 선정했다.

'1위 보이그룹'과 '1위 걸그룹'은 소속사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공식 계정 중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한 계정으로 방탄소년단(BTS, @bts.highofficial)과 블랙핑크(@blackpinkofficial)가 각각 선정됐다.

'2018년 1위 걸그룹' 어워드를 수상한 블랙핑크는 "블랙핑크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좋아해주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내년에도 더 좋은 소식과 콘텐츠로 찾아뵙겠다"며 기쁨을 전했다.

'2018년 1위 보이그룹'으로 선정된 BTS는 올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사진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해당 사진은 지난 5월 빌보드 뮤직 어워드(BMA)에서 찍은 사진으로 현재까지 총 32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btsamy는 올해 가장 많이 성장한 팬덤 해시태그로, BTS의 팬클럽인 아미(Army) 역시 '탑 팬덤 커뮤니티'로 선정됐다.

## 오늘의 순세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음력 11월 15일)



▶**운세** 자신의 위치가 지금 인생 항로에서 어느 지점인지 모르는 것은 아닌가. 자기 수양에 힘쓰면서 과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때다. 2, 8, 11월생 자만은 금물. 건강에 특히 신경 쓰라. 소화 장애로 고생할 수. 1, 3, 6월생 검은색 삼갈 것.



▶**운세** 필요 이상 불평불만하지 말라. 상대도 내 마음을 알고 있다. 욕심을 그만 부리라. 1, 5, 11월생은 마음을 비우고 넓게 보면서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다면 큰 그릇이 될 듯. 4, 8, 9, 10월생은 일찍 귀가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라.



▶**운세** 지금 비록 힘들고 지쳐도 낙심은 금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는 법. 7, 8, 9월생은 서서히 운이 열릴 수. 미혼자는 결혼이 다소 시간이 지연할 듯하니 때를 기다리라. 11월생은 2, 8월생을 피함이 좋을 듯.



▶**운세** 명예보다 사업에 신경 쓰라.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현재 위치를 지키는 길만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2, 4, 10월생은 멀리 여행이나 산행은 오늘 하루 하지 말라. 소화에 좋지 않으니 음식이 많은 곳을 피하라. 몸 관리 철저.



▶**운세** 진실한 마음이 주위에 비치니 여기저기서 도움에 손길이 올 수. 희망을 품고 착실하게 노력하니 마음에 안정과 여유가 찾아온다.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길하고, 문서 관계에도 이득이 있겠다. 4, 5, 6월생은 푸른색으로 단장하라.



▶**운세**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는 말과 같이 0, 2, 8, 9월생은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말없이 주어진 일에 전념하면 도움 줄 자 나타난다. 애정은 옛정에 끌리지 말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도전하라.



▶**운세** 손조롭게 나아가도 막히기 쉬우니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시간을 가지라. 애정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린다. 금전 문제로 문서 건으로 이득이 생길 수. 3, 10, 12월생 사업가는 밤, 원숭이, 돼지띠와 같이 하면 길.



▶**운세** 새로운 계획에 좋은 결과 있을 듯. 의욕을 갖고 능력을 한껏 발휘할 시기다. 금전적인 이득도 생길 수. 심신 피로는 자신이 알아서 체크하며 주의하라. 0, 6, 7월생은 기본 전환할 시간이 필요. 산을 벗 삼아 여행으로 재충전할 것.



▶**운세** 착실함을 제일로 해 성급함이나 경솔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최고의 날이 될 듯.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에 성과가 있겠다. 7, 9, 12월생은 제아무리 상대에게 잘 해준다고 해도 애정은 멀어진다.



▶**운세** 현재 순탄함의 연속이지만, 무모한 일에 손을 대면 실패한다. 2, 5, 8, 12월생은 꿈의 결실만 기대하고 그 이상을 탐하지 말라. 남에게 베푸는 여유를 가지라. 애정은 혼자 속 태우지 말고 친구나 뒷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



▶**운세** 인내심이 강하고, 끈기 있는 자에게 최상의 날이다. 매사 느긋한 자세로 참고 노력하라. 의외로 좋은 결과가 기다리니 힘을 내라. 7, 8, 9월생은 하면 된다는 용기가 절대 필요한 때. 아내 역시 내조로 협조함이 좋겠다. 노란색이 길.



▶**운세**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의를 품고 행동하라. 신중하게 행동하면 서서히 풀리는 운이다. 6, 7, 8월생은 애정 문제로 오랜만에 기본 날이니 멋진 시간을 보내라. 10, 11, 12월생은 녹색을 피하고 검은색으로 단장하라. 관재수 조심.